〔韓國造景學會誌, Vol.21,No.3pp.21~33 1993年 10月〕

# 조경설계작품평가의 기준과 항목에 관한 연구

조 정 송 · 안 건 용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Establishing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al Works

Cho, Jung-Song · Ahn, Kun-Y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evaluation is one of aspects of criticism, and thus it plays many roles in terms of the functions of critic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valuating criteria of landscape architectural work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essential criterion of the evaluation is 'the originality' with respect to history(or trad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the sub-criteria of the evaluation can be invented through a frame; *[<process-product> ↔ <the aesthetic-rationality-publicity> ↔ <content-context)]*.

## Ⅰ. 서 론

작품에 대한 평가는 작품이 지니는 질의 양부를 가려 좋은 작품을 고르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적 개념의 조경이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난 우리나라 조경계의 실정은 아직 작품평가의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만큼 풍요롭지는 못하다. 조경의 외형적 모습은 어느 정도 비대해졌을지 모르나 그 내부 구조는 아직 척박하다는 사실을 새삼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문물을 학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현실을 회의할 만할 여유를 가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왜곡된 조경작품의 양상을 바로잡고 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사회적 예술로서의 조경의 예술관을 견지해낼 수 있는 감시장치가 필요하다. 디자인 언어의 정밀함을 기르고 설계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내며 자유로운 변화를 부추기는 수단이 필요하다. 조경작품의 예술적 우월성과 저질성을 선별하고 구분할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경작품에 대한 정교한 평가방법과 그 기준에 실리는 무게는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조경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조경의 질적 향상과 설계교육의 체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경학 분야에서 작품평가에 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본 연구는「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지원(1992.7-1993.6)」에 의해 수행되었다.

힘든 실정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실험적인 의의 역시 지닌다고 본다.

조경작품평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에 촛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평가의 대상, 즉 '무엇을 평가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평가의 기준, 즉 '대상의 어떤 점을 평가하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평가의 방법, 즉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조경작품평가의 틀을 모색한다는 대전제 속에서, 위의 세가지 내용 중 평가의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Ⅱ. 개념 정의

### 1. 조경설계작품

일반적으로 조경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조경계획과 조경설계의 두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설계는 과학적 • 기술적 지식은 물론 디자이너의 창조력과 직관이 잘 어우러져야 하는 높은 차원의 창조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인 반면, 계획은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수단이 강조되기 마련이고 작품의 미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비중을 둔다고 본다. 그러므로 '작품'의 생산과정은 계획이라기보다는 설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흔히 말하는 조경작품은 엄밀히 말하자면 '조경설계작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조경계획과 조경설계는 엄밀히 구분될 수 있는 분야라고는 할 수 없고 연속된 과정으로 이 둘을 보는 견해도 있으며(임,1984:32),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 조경계획(landscape planning)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이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지역(region)이라는 광역적 토지를 대상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의 문제와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조경설계와는 다른 개념을 추구하면서 발전되어 온 분야라고 할 수 있다(양,1989: 9-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경설계작품을 일종의 예술작품으로 파악한다는 전제하에서, 과학적 합리성이 강조되는 조경계획작품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즉 예술적 창의성이 강조되는 작품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조경작품이란 '조경설계작품'을 의미한다. 물론 조경설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일임을 인정하며, 조경의 예술적 가능성을 일정한 테두리로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경설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만 모호하고 다양한 오늘날의 조경설계분야를 전형적인 프로젝트별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미국조경가협회(ASLA)가 한 해의 우수한 작품을 평가, 선정하는 제도인 ASLA Awards의 시상분야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듯하다.[2] *Landscape Architecture*지에 실린 최근 20년간(1973-1992)의 ASLA Awards 수상작 중 디자인 부문의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Urban Design, Park and Recreational Facilities Design, Land and Water Reclamation and Conservation Design, Landscape Art and Earth Sculpture, Commercial Design, Industrial Design, Historic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Design, Residential and Garden Design, Single or Multi-Family Housing Design, Transportation Facilities Design, Community Design, Resort Design, Interior Landscape Design 등이 조경설계작품의 영역에 속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 2 비평으로서의 조경작품평가

조경에서 일반적인 평가의 개념은 조경가의 설계과정 중에서 디자인 단계를 거친 후 제출된 설계안(대안)들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안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설계과정 중의 선택 및 수정단계는 이미 완성된 조경작품을 변경할 때 생기는 지나친 경제적 부담감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의무적인 조건에 불과하며, 그것

2) ASLA Awards의 시상분야는 크게 「Design」, 「Landscape Planning & Analysis」, 「Research」, 「Communication」으로 구분되는데, 조경설계작품은 주로 「Design」 부문에서 시상된다.

이 곧 진정한 조경작품평가가 갖는 개념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작품평가를 비평의 일환으로 생각하고자 한다.[3]

評價(evaluation)의 대표적인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美, 醜, 善, 惡의 가치를 論하여 定하는 것', 또는 '가치(양, 무게, 크기, 값, 성질 등)를 주의깊게 조사하여 이에 근사한 판단이나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평가의 어의를 알기 쉽게 요약한다면, ① 어떤 물건의 가치를(평가의 대상) ② 논하거나 판단하여(평가의 방법) ③ 결정하는 것(구체적인 결정의 기준)이 된다.

엘리어트는 비평의 목적을 '예술가의 의도와 작품의 가치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 이를 해설하며 밝혀진 가치를 비판·판별 즉 평가하여, 이를 다시 예술가들에게 충고하고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평가를 비평의 한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Eliot, 1974:78). 이렇듯 평가를 비평의 한 방법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예술비평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개략적으로 예술비평의 역사를 훑어보더라도 비평의 내용은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라는 세가지 국면간의 상호논쟁을 통해 발전되어 왔음을 간파할 수 있다.[4]

그리인은 예술비평을 분류하여 역사적 비평, 재창조적 비평, 재단적 비평으로 나누고, 비평의 완전한 형태는 이 三相의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Greene, 1952 : 369ff). 우리가 말하는 '평가'는 '재단적 비평'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리인은 '재단적 비평'을 논하여 '예술비평가가 마치 재판관의 위치에서 타 작품이나 타 가치와 관련하여 한 예술작품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라 하면서 가치규정의 준거로서-즉 좋고 나쁨을 판단·분별하는 기준으로서 '미학적 기준', '인식론적 기준', '규범론적 기준'을 제시하였다.[5]

건축비평을 이론적으로 풀어헤친 애토우(Wayne Attoe)는 건축비평을 ① 해석적 비평, ② 기술적 비평, ③ 규범적 비평으로 대분류 했다(1978:11-108). 우리가 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특정 규범(norm)의 존재를 신뢰해야 하고, 평가를 행하는 데에는 이러한 규범의 적절한 형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애토우가 말하는 '규범적 비평'을 '평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6]

창작의 관점에서 본 평가는 자신이 행한 또는 타인에 의해서 과거에 행해진 어떤 창작적 결정의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현재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경험'으로서 의의가 있고, 비평가(평가자)의 관점에서 본 평가는 자신이 사용한 평가의 개념에 의하여 시대정신을 가늠하고 대중에게 제시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평가는 사회와 대중 또는 조경가에게 발언하고 시대행동의 궤적으로 역사에 참여하는 비평의 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경작품의 평가란 제시된 작품의 良否에 대해 적절한 판정

3) 造景批評(Landscape Architectural Criticism)이란 "조경가들이 창조한 비평의 소재, 즉 조경작품이나 조경가의 경향, 조경계, 조경과 사회와의 관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경비평가나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조경사가, 조경미학자 등이 대상에 대해 비판과 찬사, 혹은 비교와 감상 등을 하기 위해 분석, 기술, 해석, 평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환경의 형성 혹은 개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서 그 시대의 인간 삶과 조경양식을 반영하는 행동의 궤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배, 1993 : 40).

4) 작품 내에서 사실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특징을 다루는 것이 記述이라면, 이에 입각해서 명백하지 않은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解釋이고, 예술에 대한 최종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는 評價는 기술과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황, 1991 : 155).

5) ① 미학적 기준 : 형식적인 면에서 본 예술적 탁월성(formal artistic excellence)을 판단하는 기준
② 인식론적 기준 : 작품의 진실성(truth)에 대한 기준
③ 규범론적 기준 : 작품의 심오성(profundity), 위대성(greatness)에 대한 기준

6) 규범적(normative) 비평 : 비평을 위한 기준으로 어떤 원리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여기에 입각하여 비평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즉 어떤 교조나 체계, 유형 등을 기본으로 하는 원리에 따른 비평이며,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는 비평의 고전적인 본질과 부합되는 방법.

을 내리고 '조경작품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시대의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7] 그러므로 조경작품의 평가를 설계안(대안)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하기 위한 대안평가나 이용자의 견해를 주로 반영하는 이용후평가(POE)등과 같은 기존의 평가개념이 아니라 비평의 한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대중이 미적 질을 분석하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환경비평이 미적 질의 분석과 평가에 더 유용하다"는 칼슨의 주장이나(Carlson,1977 : 131-71), "경관평가의 한 모델로서 경관비평"을 파악한 보우래서의 견해는(Bourassa, 1991 : 131-2)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 Ⅲ. 평가기준의 구상

### 1. 조경작품의 평가와 기준의 문제

비평의 일환으로서 평가를 파악할 때 특정한 가치판단에는 기준이 따르게 마련이며, 그 평가의 기준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이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원리이건간에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Attoe, 1978 : 11). 평가는 좋고 나쁨,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기에 모든 평가는 가치평가이며, 모든 기준은 가치기준이다(박, 1992 : 40). 즉 작품평가와 기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경작품을 비롯한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가치의 척도적 개념으로서 동의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조경이란 매우 복잡하고 다의적인 예술이라서 조경작품평가의 기준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규정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어떤 목적을 갖는 조경작품인가, 어떤 시대의 조경작품인가, 그리고 어떤 대상지와 조건 속의 조경작품인가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조경작품평가의 중요한 좌표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점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항목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평가에서 그 이상의 전개-즉, 어떤 종류의 평가형식, 평가방법, 평가의 척도, 혹은 감상까지도-는 편파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무의미한 노력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조경작품평가에 있어서 보편적인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지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은 단순한 지각적 정보를 찾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활동과 철학적 사고를 한다.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행동의 여러가지 규율, 혹은 심성의 여러가지 태도를 권장한다. 심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예술작품이 제작되고 감상된다. 이러한 인간의 작업과 노력은 각기 「진」, 「선」, 「미」의 개념으로 그 가치의 성격이 구명되고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지만, 막상 이것들이 지칭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박,1992 : 40). 요컨대 「아름다움」이란 가치는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조경작품을 비롯한 여타의 예술작품의 가치를 잴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공모전은 이곳저곳에서 자주 열리고 조경사를 비롯한 예술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다. 한 정원과 다른 정원은 신중히 비교되고, 한 조경가의 위대성과 다른 조경가의 위대성이 토론되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이 그들의 개인적 기분대로 작품의 우수성이나 졸렬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경이라는 하나의 예술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도 어떤 종류인가의 객관적 평가 기준이 있을 것임을 논리적으로 함의한다.

우리는 조경분야에서 작품의 우열을 지배해 온 몇가지 규범에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 이래로 전세계를 휩쓸다시피 한 「풍경식 정

7) 하지만 여전히 「조경작품평가」에는 몇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누가' 조경작품평가를 하는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는 것이다. 주체의 측면에서 조경작품평가는 전문가에 의한 것과 일반대중(이용자)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시점의 측면에서는 설계안에 대한 것과 완공된 작품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조경작품평가는 주체의 측면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것으로, 시점의 측면에서는 양자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원」에 대한 선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은 극단적으로는 기하학적이고 인공적인 디자인에 대한 혐오감을 낳기도 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혹은 전문가들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이 우수한 디자인이라는 기준마저 갖게 했다. 또한 60년대의 환경운동에 영향 받은 생태적 조경운동도 오랜 시간을 지배해온 하나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맥하그(Ian McHarg)와 스펀(Ann Whiston Spirn) 등을 주축으로 한 소위 Penn School에 의해 주도된 근간의 조경은 미를 추구하는 시각예술보다는 환경과학으로서의 조경에 비중을 두었다. 우리가 한 작품에 대해 "이건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많은 예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생태학은 마치 근대건축의 거대한 규범이었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명제 이상으로 조경을 지배하는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자연을 닮은 조경이 좋다', '생태학적인 조경이 옳다'등의 기준은 그러한 원칙이나 기준이 존재한다는 특정한 시대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지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을 「아름다움」이라는 도저히 밝혀질 수 없는 척도에 의해 재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술의 고유한 그리고 근본적인 기능이 「가능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있다면 한 예술작품의 가치평가는 그것이 얼마나 참신하고 열린 세계를 제시하며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를 해방시켜 주느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작품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만큼 새로운 것인가, 즉 얼마만큼 창조적인 것인가의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예술작품의 평가를 위한 그밖의 모든 기준이나 근거들은 엄격히 말해서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부차적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박, 1992 : 43). 이와 같이 볼 때, 조경이 하나의 예술이라면, 조경작품의 가치는 일단 예술이 지니는 고유한 그리고 근본적인 기능에 기준하여 평가됨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경작품을 비롯한 예술작품의 근본적인 가치기준은 〈독창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독창성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 독창성이란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그리브스(George Hargreaves)의 Halequin Plaza와 같은 신선한 작품은 조경이라는 예술분야내에서 신선한 것이지 그것을 뉴에이지 음악의 독창성과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예술작품으로서의 독창성을 의미할 뿐이지 경제학이나 정치학적 각도에서의 독창성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조경작품의 독창성은 조경작품으로서의 독창성에만 입각해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평가는 조경작품의 전통속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조경작품의 창작과 감상과 평가가 없었더라면 조경작품의 독창성을 말할 수 없다. 조경의 전통은 조경사라는 형태로서 나타난다. 즉 조경작품의 독창성은 조경분야의 전통, 즉 조경사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켄트(William Kent)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현대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의 잔재는 18세기에 누렸던 독창성이라는 명성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옴스테드식의 전통에 도전한 츄미(Bernard Tschumi)의 라 빌레뜨공원이 지니는 충격적인 독창성은 옴스테드의 시대에서는 천덕꾸러기로 평가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간단한 예가 위의 논의를 입증한다. 그러므로 조경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조경사의 좌표선상에서 바라본 〈독창성〉이라 할 수 있다.

## 2. 조경의 본질과 작품평가의 기준

그렇다면 「독창성」이라는 가치 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설정하는 문제는 결국 조경작품이 획득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경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여러 '정의'들을 살펴봄으로써 조경의 목적과 본질을 파악하여 조경설계작품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당대의 조경사가인 뉴우턴의 표현을 빌자면, "기술(art)로서의 조경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전문업(profession)으로서의 조경의 역사는 불과 1세기 밖에 되지 않았다"(Newton,

1976 : xxi). 알함브라궁의 정원이라든가 베르사이유궁의 후원 등은 비록 한 시대를 가름짓는 역작들로 정원양식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들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왕후장상, 부호 등 소수특권층의 전유물로 그들을 위한 私的 조원활동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조경과는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적 조경의 발아는 186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의 다우닝(A.J.Downing), 옴스테드(F.L.Olmsted), 엘리어트(C.Eliot)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적 선각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른바 "공원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후 환경문제가 대두하게 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된 근래에 이르러서는 생태학적 접근방법이 도입되기도 하였으며,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 관광 및 여가생활계획, 문화재를 비롯한 역사경관의 보존 등 극히 다양한 영역으로 조경이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경의 본질, 즉 정의를 바꾸어 갔다.

클리블랜드는 그의 저서 『*Landscape Architecture as Applied to the Wants of the West*』(Cleveland, 1873)에서 "조경이란 문명의 각종 요구에 대해 가장 편리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優美에 적합하도록 토지(land)를 배열(arrange)하는 예술(art)이다"라고 조경을 정의하고 있다. 뉴유턴은 "조경은 인간이 효율적으로, 보건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토지 위에 놓인 공간 및 사물과 더불어 토지를 배열하는 예술이자 과학이다"(Newton,1950:19)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 『*Design on the Land*』(1976 : xxi)에서도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시간적으로 백여년이나 차이가 나는 클리블랜드와 뉴우턴의 정의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다만, 뉴우턴의 정의에 과학(science)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차이가 있다. 이들의 정의에서 공통되는 점을 가려내면, 조경은 인간의 편리와 미를 위해 토지를 배열하는 공간예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한편 허버드와 킴볼은 "조경이란 본래 미술의 일종이며,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거환경에서 넓게는 국토의 자연풍경에 이르기까지 그 미를 창조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조경술을 통해, 그리고 자연이 풍부하게 제공해 주는 아름답고 평온한 경관을 통해, 전원생활에 대한 접근기회가 거의 없고 바쁜 노동생활로 인해 후생과 휴양이 절실히 요구되는 도시인에게 위락과 편익과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Hubbard & Kimball, 1917 : 1)라고 조경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역시 조경을 예술로 보고 있으며,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클리블랜드나 뉴우턴의 정의보다 더 포괄적으로 조경을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크보는 "조경은 건물 및 대지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관 사이에 연속성, 연결성, 관계성을 부여해 주는데 있다. 또 조경의 기능이 인간과 인간주변의 세계 사이에 가능한한 좋은 물리적 관계성을 수립해 주는 것이므로 조경은 인간의 이용과 옥외공간의 경험,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사이의 물리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예술이다"(Eckbo,1969 : 97-8)라고 말하고 있다. 에크보의 정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60년대를 지나면서 환경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히 대두되면서 조경도 전통적인 설계지향적(design-oriented)인 분야로부터 계획지향적(planning-oriented)인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 갔으며, 이 이후의 정의에서는 조경을 예술이기보다는 '과학'으로 파악하고 있는 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ASLA의 주관으로 진행된 연구조사의 결과는 "조경은 토지를 돌본다는 개념과 함께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토지를 계획 • 설계 • 관리함에 있어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는 예술이다"(Fein, 1972 : 102)라고 조경을 정의하면서, 조경이 지녀야할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75년 ASLA에서 채택한 "조경이란 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관심을 두고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동원 • 활용하여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를 적절히 조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토지에 대한 설계 • 계획 및 관리의 기술이다"(Marshall, 1981 : 6-7)라는 정의는 환경의 보전과 치료로 관심을 돌린 조경의 변화를 극명히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한편 '8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환경과학으

로서의 조경의 위상에 변화가 오게 된다. 조경을 다시 전통적인 시각예술로 파악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개성, 장소성과 대중성 등의 측면을 부각하고자 하는 일련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Boles, 1989 : 51－82), 이러한 움직임을 아방가르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를 근래에 흔히 접할 수 있다.[8] 즉 최근의 전반적인 조경사조는 과학, 문학, 예술 전반에 걸쳐 팽배했던 모더니즘의 헤게모니가 사라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다의적이고 상징적이며 혁신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1세기를 겨우 넘었다고 할 수 있는 현대 조경의 외연과 내포에 이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난 점에서 조경은 사회의 수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조경에 대한 이상의 여러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은 결국, 「심미성(예술성)」, 「합리성(과학성)」, 「공공성」의 세 국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설계작품이 성취해야 할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경의 목적과 본질을 담보해야 할 조경작품 평가기준의 핵심적 내용은 이들 심미성, 합리성, 공공성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작품평가의 대상이 될 조경설계작품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고 본다. 하나는 시공되기 이전의 "설계안으로서의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시공되어진 현실세계의 설계작품"이다. 전자에서는 작품의 창작 "과정(process)"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고, 후자에서는 "결과물(product)"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설계작품은 "내용(content)"과 "맥락(context)"이라는 두개의 큰 축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9] 내용은 작품의 창작과정과 형태와 소재와 색상 등에 관련되고, 맥락은 당시의 상황과 문화적 환경에 대해 작품의 관련성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결과물〉, 〈내용－맥락〉이라는 개념은 조경설계작품의 특성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하부 위계의 평가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Ⅳ. 조경설계작품의 평가 기준과 항목

이상의 논의에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실제의 작품평들에 나타나는 평가 기준의 제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작품평을 분석한 후, 이러한 분석과 Ⅱ, Ⅲ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조경설계작품의 평가 기준과 항목을 설정해보기로 한다.

### 1. 기존 작품평에 나타나는 평가 기준의 제문제－한국, 미국, 일본의 비교 분석

한국의 작품평 분석 대상으로는 "「한국조경작품전」 수상작에 대한 작품평"[10] 40개를 채택하였다. 미국의 작품평 분석 대상으로는 "「ASLA Awards」 수상작에 대한 작품평"[11] 75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작품평 분석 대상으로는 일본조원학회가 주관하여 선정하는 "「造園作品選」에 뽑힌 작품에 대한 선평" 41개를 채택하였다.[12]

이들 대상 작품평에 나타나는 평가자의 평가기준을 평가의 주요어(key words)를 중심으로 하여

8) 이러한 예로 앤덜튼(F.Anderton)의 글("Avant-Gardens", *Architectural Review*, Sep.1989, pp.32-41)이나 브라운(B.Brown)의 논문("Avant-Gardism and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Journal* 10(2), 1991, pp.134-154)등 다수가 있다.

9) '내용'과 '맥락'에 관한 메이어(E.K.Meyer)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주목된다. "조경 설계란 '사고의 형식과 지식의 형태를 조작하여 환경에 대한 문화의 복합적 관계성을 표현하는 비평적 행동'이다_조경비평이란 작품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다"(1991:156-9).

10) 이 40개의 작품평은 엄밀히 본다면 본 연구에서 개념정의했던 '조경작품평가'의 범주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조경계에서 볼 수 있는 작품평의 흔적 중 비교적 오랜 나이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양상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고 전수 조사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11) ASLA Awards는 1899년부터 Design Awards를 정기적으로 수여하기 시작하여 1960년에 공식화되었다. ASLA Awards 심사평에 대한 분석은 오랜 기간동안의 자료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조경작품평가의 기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다.

12)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된 작품평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메타크리티시즘적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13]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된다.

• 한국의 사례에서 분석된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계획/설계 과정이나 방법, 그리고 작품 표현의 우수/비우수성에 대한 기준(예를 들어, 대상지, 개념, 과정, 공간별 기능,토지이용, 동선, 표현기법 등)

② 특정한 규범이나 개념 혹은 이들의 조합을 토대로 한 기준(예를 들어, 시사성, 조경의 사회적 책무, 조경사적 교훈, 한국적 영역성, 창조성, 실험정신 등)

•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평가의 기준 역시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①의 기준보다는 ②의 기준이 우세한 것이 두드러진다.

① 계획/설계의 합리성 혹은 그 과정, 그리고 관리의 측면에 대한 기준(예를 들어, 개념, 접근방법, 공간구성, 공간배치, 동선의 패턴, 유지관리 등)

② 특정한 규범이나 개념 혹은 이들의 조합에 의한 기준(예를 들어, 인간을 위한 설계, 조경과 건축의 통합, 작품의 예술성, 지역성, 전통의 계승, 조경가의 역할과 능력 등)

• 다음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작품평가의 기준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 일본의 작품평가 기준 역시 한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① 계획/설계 과정이나 방법, 그리고 작품 표현의 우수/비우수성에 대한 기준, ② 특정한 규범이나 개념 혹은 이들의 조합을 토대로 한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그들나름의 전통문화계승에 관한 기준이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나 시민의견의 반영 등이 평가기준으로 사용된 예를 다수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주로 등장하는 평가 언어는 주제, 대상지, 개념, 과정, 표현(연출), 시사성, 공간(혹은 토지)이용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조경계획/설계과정상에서의 주요 단계나 언어와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평가의 기준에 대한 연구와 조경계획/설계과정에 대한 연구간의 상호관련성을 시사한다.

• 비슷한 주제를 다룬 작품에 대한 작품평은 평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제 혹은 대상이 비슷한 작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작품의 질은 작품 자체의 질은 물론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관점이 평가의 기준 속에 용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조경작품의 질을 가치판단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보아서 작품의 '창작 과정'과 '결과물'의 우수성,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 '맥락'과 관계를 지닌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앞장에서 논의했던 내

---

① 1987년 제4회 한국조경작품전 대상(1), 은상(2), 동상(4) 수상작에 대한 작품평 총 7개, 1988년 제5회 한국조경작품전 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3) 수상작 에 대한 작품평 총 9개, 1989년 제6회 한국조경작품전 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 수상작에 대한 작품평 총 10개 (이상 자료; 『한국조경작품전 수상작 모음집』, 1990, 도서출판 조경), 1986년 전국대학생조경작품특선에 대한 작품평 총 11개 (자료; 『환경& 조경』, 1987, No.15), 1991년 제8회 한국조경작품전 추천작에 대한 작품평 총 3개 (자료; 『환경& 조경』, 1992, No.45-46).— 총 40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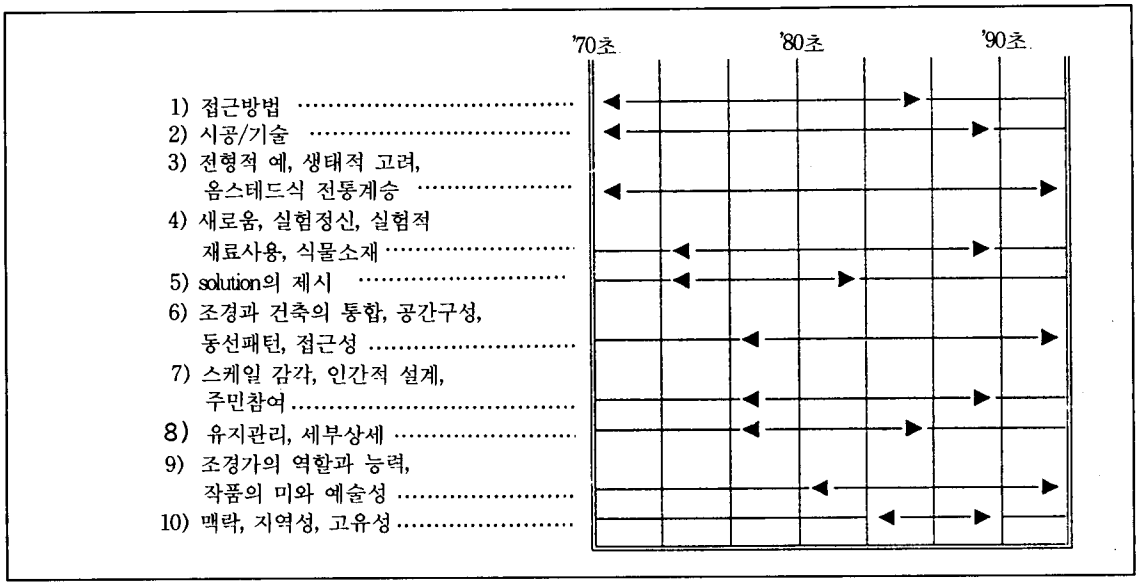
② 1973년부터 1992년까지 20년간 ASLA Awards의 디자인 부문에서 Honor Award를 수상한 64개의 작품, President's Award를 수상한 6개 작품, Special Award를 수상 한 3개 작품, 그리고 Classic Award를 수상한 2개 작품에 대한 작품평.— 총 75개 (자료; "ASLA AWARDS" in *Landscape Architecture* 1973—1992)

③ 1992년 일본조원학회가 발간한 「造園作品選集」에 실린 41개 작품에 대한 選評 41개.

13) 죠지 딕키는 비평가들이 하나의 예술작품을 기술하거나 해석하거나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본 개념들을 분석하고 명료하게 하는 철학적인 작업이라고 메타크리티시즘을 설명한다 (Dickie,1988:62-6).

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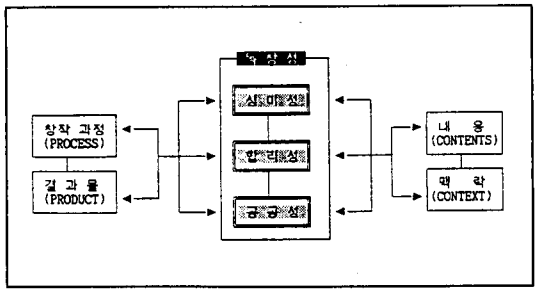
〈표 1〉 ASLA Awards 평가기준의 변화 경향




## 2. 조경설계작품의 평가 기준

앞의 Ⅱ, 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경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상위의 기준은 조경사의 좌표선상에서 바라본 〈독창성〉이라고 본다. 그리고 조경의 목적과 본질을 담보해야 할 조경작품 평가기준의 핵심적 내용은 〈심미성〉, 〈합리성〉, 〈공공성〉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기준은 이들을 상호 연결하는 작품의 〈과정-결과물〉, 〈내용-맥락〉이라는 상보적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한국조경작품전 수상작에 대한 작품평, ASLA Awards 수상작에 대한 작품평, 그리고 일본 조원작품선에 대한 작품평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조경설계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의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할 배타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경설계작품이 성취해야 할 본질을 잘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기준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기준의 틀 속에서 평가자의 개인적 해석이 창조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림 1〉 조경설계작품평가의 기준

## 3. 조경설계작품평가의 항목

〈그림 1〉의 기준들을 이용하여 조합을 만들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일반적인 조경설계작품의 평가 항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항목은 평가 대상이 어느 대상지에 위치한 작품인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작품인가, 어느 시대의 작품인가 등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제시하는 항목은 개략적으로 조경설계작품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특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상황에 맞게 비중을 달리하여 적절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 2〉에서 제시한 평가의 항목은 종종 시행되고 있는 설계경기(Design Competition)에서 심사항목(checklist)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행 한국조경작품전의 심사기준은 〈부록 1〉과 같다. 이 심사기준은 '과정'의 측면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며, 각기 다른 주제의 작품이 출품되는 현행 작품전에서 각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으로서는 다소 문제를 지닌다고 본다. 이외에도 각종 설계경기에서 심사의 객관성이 자주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교한 심사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적 사례를 구상해 볼 수 있다(〈표 3〉 참조). 물론 다음의 〈표 3〉은 어떤 동의(consensus)가 있는 객관적 심사항목이 아니라 앞의 논의를 기초로 한 하나의 구상안임을 밝힌다.

〈표 2〉 조경설계작품의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평 가 항 목 | 평가항목의 내용(예) |
|---|---|---|
| 독창성 (Z) | 독창성(Z0) | 작품이 이 시대의 생활방식, 가치체계, 보편적 정신은 물론, 새로움을 전달하는가? |
| 심미성 (ZA) | 설계과정의 심미성(Z1) | 조경가의 창작과정에 예술적 정신이 있는가? |
| | 결과물의 심미성(Z2) | 작품의 형태가 즐거움, 안락감, 풍요함 등 아름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
| | 내용적 심미성(Z3) | 작품의 내용이 주는 인상이 강하여 그것을 기억할만한가? 미적인 감흥을 주며 인간의 정신을 환기시킬만한가? |
| | 맥락적 심미성(Z4) | 작품이 역사적 맥락에 참여하여 기억될만한 가치가 있는가? 주변의 지역적 맥락과 형태적으로 조화되는가? |
| 합리성 (ZB) | 설계과정의 합리성(Z5) | 조경가의 창작과정에 합리성이 있는가? |
| | 결과물의 합리성(Z6) | 작품이 주어진 경제적 • 사회적 조건에 부합되는가? |
| | 내용적 합리성(Z7) | 작품의 형태와 내용이 작품이 달성해야 할 기능을 담아내는가? |
| | 맥락적 합리성(Z8) | 작품이 주변지역의 기후, 지형, 교통상태 등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
| 공공성 (ZC) | 설계과정의 공공성(Z9) | 조경가의 수주과정 및 창작과정이 사회적 윤리를 위배하지 않는가? |
| | 결과물의 공공성(Z10) | 작품의 형태나 내용이 대중의 정서에 부합되며 대중에게 잘 전달되는가? |
| | 내용적 공공성(Z11) | 작품의 내용이 주어진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가? |
| | 맥락적 공공성(Z12) | 작품의 기능이 주변지역의 커뮤니티에 공헌하는가? |

## V. 결 론

조경의 귀결은 '좋은 환경'을 이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의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인 굴레를 탈피하여 그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정과 의미와 정신이라고 정의된다면, 조경가가 다루어야 할 대상은 곧 인간의 문화요 이 시대의 정신이며 예술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경가의 작업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조경가들은 수없이 많은 과오를 범해왔다. 비평의 일환으로서의 작품평가는 이러한 과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또한 이는 가치발견의 논리요,

〈표 3〉 설계경기의 심사 항목 (구상안)

▨평가일: 199X년 X월 XX일 ▨평가자: ○○○ ▨작품명:_____

1. 독창성 (20점)

| 작품의 독창성 (ZO) | □□ |
|---|---|

Unacceptable
| Poor
| | Acceptable
| | | Good
| | | | Excellent
1 2 3 4 5
□□□□□

2. 심미성—합리성—공공성 (60점)

| | | 1 2 3 4 5 |
|---|---|---|
| 심미성 (20점) | ▨설계과정의 심미성 | □□□□□ |
| | ▨결과물의 심미성 | □□□□□ |
| | ▨내용적 심미성 | □□□□□ |
| | ▨맥락적 심미성 | □□□□□ |
| | ■심미성 평가 합계(ZA) | □□ |
| 합리성 (20점) | ▨설계과정의 합리성 | □□□□□ |
| | ▨결과물의 합리성 | □□□□□ |
| | ▨내용적 합리성 | □□□□□ |
| | ▨맥락적 합리성 | □□□□□ |
| | ■합리성 평가 합계(ZB) | □□ |
| 공공성 (20점) | ▨설계과정의 공공성 | □□□□□ |
| | ▨결과물의 공공성 | □□□□□ |
| | ▨내용적 공공성 | □□□□□ |
| | ▨맥락적 공공성 | □□□□□ |
| | ■공공성 평가 합계(ZC) | □□ |

3. 「심미성—합리성—공공성」의 상호작용 (각 20점)

| | ZA | ZB | ZC |
|---|---|---|---|
| ZA | -- | | |
| ZB | | -- | |
| ZC | | | -- |

ZA--ZB □□
ZA--ZC □□
ZB--ZA □□
ZB--ZC □□
ZC--ZA □□
+) ZC--ZB □□
합계/3 = □□(ZZ)

4. 평가점수의 최종 합계 (100점) ZO□□+ZA□□+ZB□□+ZC□□+ZZ□□ = □□□

미래진행형의 예지를 담은 가치창조의 작업이다. 그러기에 작품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실제로 조경가의 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완성된 작업의 의미를 다음의 작업을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평의 한 국면이라 할 수 있는 평가의 측면에 접근하고자 했다. 특히 평가의 〈기준〉을 조경작품이 지니는 본연의 특성에 근거하여 모색하고자 했다. 그 결과, 조경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 기준은 조경사의 좌표선상에서 비춰본 〈독창성〉임을 논하고, 조경작품의 근본적 속성인 〈심미성〉, 〈합리성〉, 〈공공성〉이 독창성의 하부 위계에서 작품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논했다. 또한 조경작품의 평가 기준은 〈과정 – 결과물〉의 관계, 그리고 〈내용 – 맥락〉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응용 사례로 조경작품평가의 항목과 설계경기의 심사항목을 구상해 보았다. 앞에서 제시한 조경설계작품평가의 기준과 항목은 우리나라에서 조경비평은 물론 조경작품평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세밀하고 심도있는 발전적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 인 용 문 헌


1. 박이문(1992) "예술작품 평가의 역사성", 「공간」 296, p.40,43.
2. 배정한(1993) 「조경비평의 이론과 방법론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 논문, p.40.
3. 양병이(1989) "조경계획과 설계", 「터전」 2, pp.9–14.
4. 임승빈(1984) 「조경계획 • 설계론」, 보성문화사, p.32.
5. "제 8회 한국조경작품전 추천작", 「환경& 조경」, 1992, 45–46호.
6. "특집 / 전국대학학생조경작품특선", 「환경& 조경」, 1987, 15호, pp.46–86.
7. 「한국조경작품전 수상작 모음집」, 도서출판 조경, 1990, pp.54-197.
8. 황기원(1983) "조경의 역사와 역사 속의 조경", 「토지개발기술」 춘계호, p.36.
9. 황유경(1991) "분석미학에 있어서 예술비평의 문제", 「미학」 제 16집, p.155.
10. Aldrich,V.C.(1963) *Philosophy of Art*, 오병남 역(1983), 「예술철학」, 서울 : 종로서적, pp.137–180.
11. Anderton,F.(1989) "Avant-Gardens", *Architectural Review* (Sep.'89), London, pp. 32-41.
12. "ASLA AWARDS" in *Landscape Architecture* (1973-1992), The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Washington D.C.
13. Attoe,W.(1978) *Architecture and Critical Imagination*, N. Y. : John Wiley & Sons, pp.11-108.
14. Boles,D.(1989) "New American Landscape", *Progressive Architecture* (July/ '89), Cleveland: A Penton Pub., pp.51–82.
15. Brown,B.(1991) "Avant-Gardism and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Journal* 10(2), The Univ. of Wisconsin Press, pp.134–54.
16. Bourassa,S.C.(1991) "Landscape Criticism as a Model for Landscape evaluation", in *The Aesthetics of Landscape*, London : Belhaven, pp.131-2.
17. Carlson, A.A.(1977)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Landscape Planning* 4, N.Y.: Elsevier, pp.131-71.
18. Dickie,G.(1966) *Aesthetics : An Introduction*, 오병남 • 황유경 역(1980) 「미학입문」, 서울 : 서광사, pp.62-66.
19. Eckbo,G.(1969) *The Landscape We See*, N.Y. : McGraw-Hill, pp.97-8.
20. Eliot,T.S, "The Function of Criticism" in *Selected Essays 1917-32*, 최종수역 (1974) 「문예비평론」, 서울 : 박영사, p.78.
21. Fein, A.(1972) "Report on the Profess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yearbook '72*, The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Washington D.C. p.102.
22. Frye,N.(1973)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pp.3-4.
23. Greene,S.(1992) "Cityshape ; Communicating and Evaluating Community Design", *J.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2), Washington D.C., pp.177-89.
24. Greene,T.M.(1952) *The Arts and the Arts of Criticism*,

Princeton Univ. Press, pp.369ff.

25. Hubbard,H.V. & T. Kimball(1917)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andscape Design*, N.Y. : MacMillian, p.1.
26. Laurie,M.(1986) *An 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2nd ed., N.Y. : Elsevier, p.9,11.
27. Marshall,L.L.(1981) *Landscape Architecture : Guidelines to Professional Practice*, The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Washington D.C., PP.6-7
28. Meyer,E.K.(1991)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as a Critical Practice", *Landscape* Journal 10(2), The Univ. of Wisconsin Press, pp.156-9.
29. Newton,N.T.(1950) "A Brief Description of the Profession and its Scope", *Landscape Architecture* 41(1), The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Washington D.C., p.19.
30. _____(1976) *Design on the Land*,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pp. xxi-xxiv.
31. Stolnitz,J.(1960)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오병남 역 (1990), 「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 이론과 실천, pp.341-478.
32. Tatarkiewicz,W.(1976) *A History of Six Ideas-An Essays in Aesthetics*, 이용대 역(1990)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 미학에세이」, 서울 : 이론과 실천, pp.82-85.
33. 日本造園學會(1992) "造園作品選集 1992", 「造園雜誌」 第 55卷 增刊, pp.2-97.

## 부 록

〈부록 1〉 한국조경작품전 심사기준

| 주제의 합당성 | 과정의 우수성 | 설계개념의 우수성 | 표 현 |
|---|---|---|---|
| – 대상의 선정 | – 전체과정 | – 설계개념 | – 작품의 그래픽 |
| – 대상지 | – 분석 및 종합 | – 설계대안 | – 전시 방법 |
| – 주제의 유용성 | | – 최 종 안 | |
| 점 수 : | 점 수 : | 점 수 : | 점 수 : |